

사제관	조해인 바오로(주임) 919-6814
	윤석주 레오(협력)
	김혁빈 안드레아(부주임) 919-6815
수녀원	함 막달레나, 이 아가타 919-6816
사목회	유동기 하상바오로 010-3758-6456
선종회	최광호 아오스딩 010-9871-4932
사무실	919-6811, 6812 919-6813 (팩스)

정발산성당

[성모성탄성당]



일산동구 일산로 419
http://sd.uca.or.kr/jbs/

주일미사	06:00, 09:00 11:00, 18:00
토요일	15:00, 18:00
평일미사	(월) 06:00, 10:00 (화) 10:00, 20:00 (수) 06:00, 10:00 (목) 06:00, 10:00 (금) 06:00, 10:00 (토) 10:00
고해성사	미사 15분전, 유아방
혼인면당	수시(한달 전 예약)
유아세례	흄수달 세번째 토 17:00

공 지 사 항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일 시 : 6/18(화) 10:00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와 성소후원회를 위한 기도를 바치오니 후원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꾸르실료 참가

- 참가자 : 이민호 필립보
- 기 간 : 6/20(목)~6/23(주일)
-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민족화해위원회 월례미사

- 일 시 : 6/22(토) 10:00

◎ 6월 23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6월 30일 교황주일 특별헌금 봉헌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누구도 받지 않은 저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 속에 저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 자리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람들에게 열시를 받든, 존경을 받든, 하느님은 저를 아시고, 제 이름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 성 존 헨리 뉴먼

◎ 오남 성당 건축 헌금 후원 결과

- 모금액 : 총 45,839,000원
- (2차 헌금 3,436,000원 + 42,403,000원/191명)
- 교우 여러분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 역 • 단 체

◎ 4구역 형제모임

- 일 시 : 6/16(주일) 19:00, b-5

◎ 사목협의회 워크샵

- 일시 : 6/23(주일), 16:00, 마리아홀

우 리 의 정 성 6/3-6/9

교 무 금(7,420,000원)
주일헌금(4,758,500원)
감사헌금(350,000원)

익명(10만원), 김정철 대건안드레아(10만원),
익명(10만원), 백승희 마리안나(5만원)

- ◎ 교무금 우체국 104810-01-001203
- ◎ 성소후원금 우체국 104810-01-001904
- ◎ 사회복지기금 우체국 104810-01-001442

<정발산성당 문화영성모임 파로스(PHAROS)의 서울성지순례길 1코스 체험기>

일시 :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참여 : 김수영 제노베파, 김하경 루치아, 서주연 발레리아, 안수연 미카엘라, 최순호 예바

2018년 9월 14일 아시아 최초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선포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 말씀의 길(1코스), - 생명의 길(2코스), - 일치의 길(3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파로스는 이중 말씀의 길을 직접 따라가 보며 한국 천주교의 시작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 보고자 했습니다.



① **명동주교좌 성지성당** :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은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이자 최초의 본당으로 한국 교회 신앙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이며, 여러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입니다. 성당 설계와 공사의 지휘 감독은 코스트 신부가 맡았으며 1898년 5월 성령강림대축일에 위털 주교의 집전으로 봉헌식을 하면서 기해박해와 병인박해 때 믿음을 지킨 순교자의 유해를 받아 지하 성당에 모셨습니다. 파로스는 11시 명동성당 미사를 시작으로 서울 순례길 제1코스를 시작했습니다.

② **장악원 터 (김범우의 집터)** : 이곳은 한국 천주교회 창설 직후인 1784년 말 신앙 집회가 열렸던 곳으로, 김범우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증거자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던 신앙공동체를 ‘명례방 공동체’라고 하는데, 구성원은 이승훈과 이벽을 비롯하여, 권일신, 정약용, 최인길, 지항 등이었습니다.

③ **한국천주교회 창립터 (이벽의 집터)** :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은 1784년 이벽의 집에서 이벽, 권일신, 정약용 등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는 한국에서 거행된 최초의 세례식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로 간주 됩니다. 이벽의 집은 수표교 남쪽으로 추정되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 이곳에 기념 표석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④ **좌포도청 터** : 우포도청과 함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에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한 곳입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좌포도청의 원래 역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출소와 소방서가 된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⑤ **종로 성지 성당** : 종로성당은 서울의 중요한 순교 터이자 최대의 신앙 증언 터였던 좌·우 포도청과 의금부, 형조, 전옥서 등의 관아들이 있던 곳을 관할하기 때문에 2013년 2월 서울대교구장 영수정 추기경이 ‘포도청 순례지 성당’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순교자 현양관에선 해설사님들의 친절한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⑥ **광희문 성지** : 도성 안에서 참수 치명한 순교자들의 시신을 내다 버리던 슬픈 역사의 장소인 것만이 아닌, 순교자들의 주검과 피를 통해 성화 된 중요한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⑦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성당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본토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모셔져, 오늘날 그를 본받아 이 땅의 참된 목자가 되려는 신학도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⑧ **석정보름우물** : 돌로 된 이 우물은 15일 동안은 맑고 15일 동안은 흐려지곤 했기 때문에 보름우물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신부인 주문모 신부가 선교활동을 할 당시 이 우물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⑨ **가회동성당** : 가회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선교사인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1794년 조선에 밀입국하여 1795년 4월 5일 예수 부활 대축일에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서(한국 땅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말씀의 길 제1코스의 마지막 성지이며 제2코스 생명의 길의 첫 성지이기도 합니다.